

영어 영역

1

제 1 교시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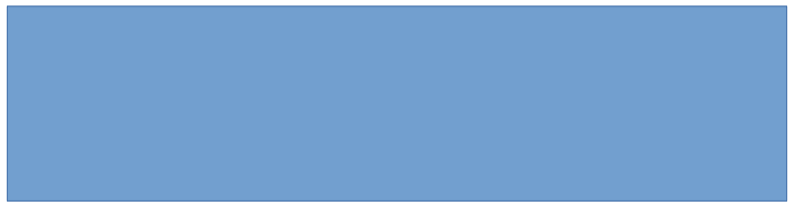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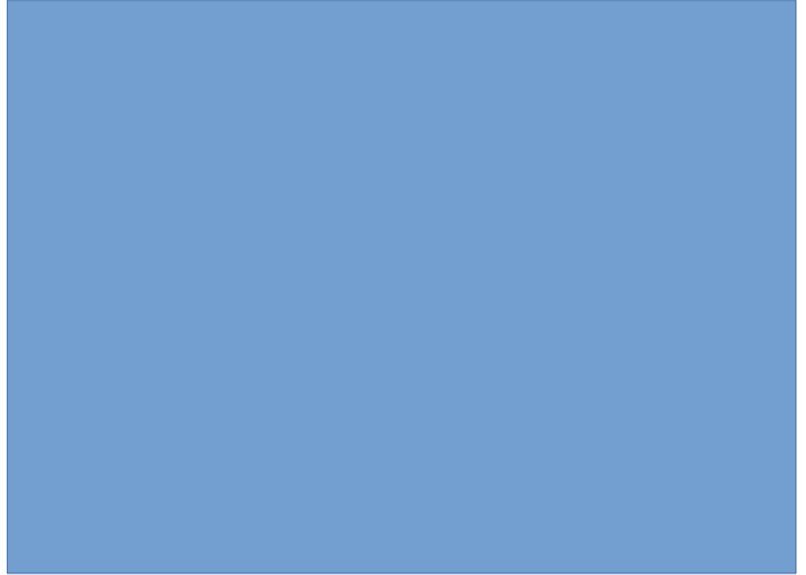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않은 것은? [1 점]

않은 것은?

못한 반응은?

언어영역



않은 것은? [1 점]

학력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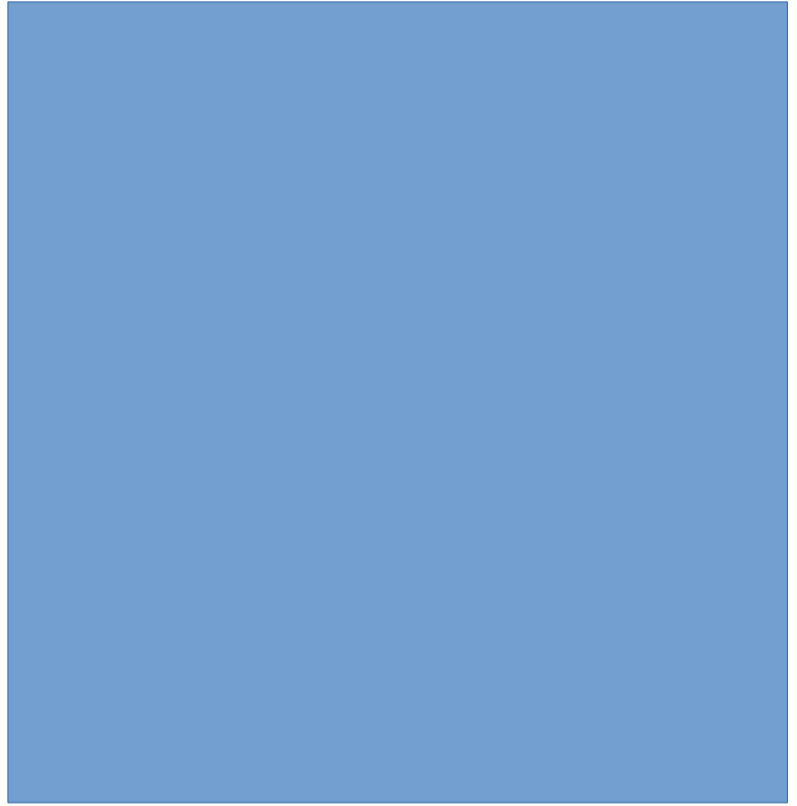
않은 것은?

으로 적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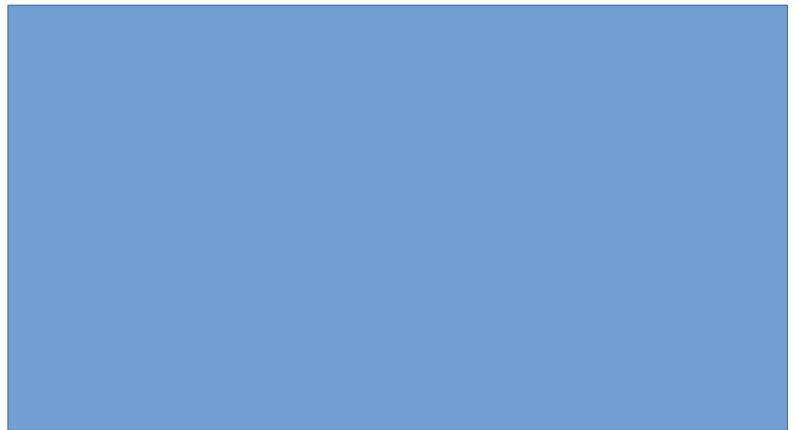


언어영역

3



않은 것은?



언어영역



[16~2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고기 낚세.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세며 마시리라. 봄바람 문득 불어 푸른 들 건너오니, 맑은 향기 술잔에 가득, 붉은 꽃잎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말하여라. 소동(?) 아)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동이 떼고, 나직이 흥얼대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시내 굽어보니, 떠오르는 건 도화로세.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이 무릉인가. 술숲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 부여잡고, 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들 여기저기 벌여 있네. ㉠

안개
 놀 햇빛은 비단을 펼쳐 논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이 완연하네. 부귀(?)
 ◆)도 날 꺼리고 공명(새?)도 날 꺼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요. 누추한 곳 가난한 삶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평생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다)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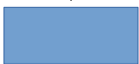
우리의 행복의 문은

㉤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들을 사랑한다.



언어영역

5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여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 김현승, '지각(?)'

(라) 활짝 갠 날씨에 물색이 산뜻한데
즐거운 놀이에 온갖 회포와 시름 다 잇는다.
지는 해를 머금은 강물은 황금 빛이요
바람결에 훑날리는 버들솜은 흰 눈이어라.

㉠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

감흥이 일어 새로운 시 한 수 쓰려 하나
붓 들어 적으려 하니 호기(?) 모자라 부끄러우이.
- 정지상, '춘일(?)'

얽은 것은?



언어영역

않은 것은? [1 점]

분청이나 철화, 달항아리 같은 도자기 역시 예상과는 달리
균제적이거나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같은 비균제성이나
비대칭성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형의 어눌함을 수반하는
상의 세련됨'을 추구하는 미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파악하는 우리민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천지인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없는 것은? [1 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달항아리는 도자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항아리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의 별칭이다. 앞에 '달'자가 붙은
것은 동실 떠오르는 보름달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항아리 가운데 간혹 한쪽으로 살짝 일그러진 것이 있다. 이는
달항아리를 만들 때 큰 대접같이 생긴 것 두 개를 따로따로 빚어
위아래로 마주 얹는데 위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래쪽이 약간씩
내려앉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 위에 얹는 것이 보이다. 보
위에 도리를 얹고 다시 서까래를 얹으면 한옥의 구조가 완성된다. 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대들보인데, 이것은 아래쪽의 기둥과 위쪽의
지붕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구조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들보
가운데 간혹 심하게 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휘어진 목재가 대들보로 심심치 않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이다.

일그러진 달항아리와 휘어진 대들보. 물론 달항아리와 대들보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실인즉 일그러지지 않은 달항아리와
휘어지지 않은 대들보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은 달항아리가 일그러졌다고 해서 깨뜨려 버리거나,
대들보감이 구부러졌다고 해서 고쳐서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살짝 일그러진 달항아리나 그럴싸하게
휘어진 대들보, 입술이 약간 휘어져 삐뚜름 능청거리는 사발이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일그러진 달항아리와 휘어진 대들보에서 '형(?)의 어눌함'과 함께
'상(?)의 세련됨'을 볼 수 있다. 즉 '상의 세련됨'을 머금은 '형의
어눌함'을 발견하게 된다. 대체로 ㉠

평
균치를 넘어서는 우아함을 갖춘 상은 어느 정도 형의 어눌
함을 수반한다. 이런 형상을 가리켜 아졸하거나 고졸하다고 하는데,
한국문화는 이렇게 상의 세련됨과 형의 어눌함이 어우러진 아졸함이나
고졸함의 형상으로 넘쳐난다.



언어영역

차이가 드러나므로 성별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감성과

이성, 관계와 정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참된 의미의 공유를 위한 의사 소통 과정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 이성과 정보에 우월하고 상대방이 감성과 관계에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을 이해하지 못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면에 우월성을 보이는 남녀의 협력이 필요하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으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남녀 역할에 차이가 줄어들었다. 특히 21세기에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차이가 없어진다 해도 생물학적 제한 조건으로 인한 최소한의 차이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남녀의 의사 소통 방식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 형식면에서는 같은 언어 체계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용하는 어휘는 같지만, 그 내용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 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감정의 강도와 인간 관계에 따라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여성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서도 남성이 그 속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남성은 직접적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서, 직접적인 요청을 할 때 더 잘 받아들인다.

대화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양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체로 내면의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반면, 여성은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싶어한다. 서로 자신이 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해 주려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남성은 여성의 신뢰와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은 상대가 마음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자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미디어 이용 양식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은 사실적인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여성은 인간 관계의 대리적 경험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많이 시청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차이일 수도 있다. 즉, 남성이나 여성이나 전문직에 있을 때에는 정보를 많이 추구하고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는 관계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에게도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방에서 붓을 샀다.

노동 못지 않게
휴식도 중요하다.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언어영역

기술과 법률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영화란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으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오던 공룡이 6천 5백만 년 전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졌다. 왜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러한 미스터리는 1820년대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된 후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공룡 멸종의 원인을 밝혀보려는 노력은 수없이 많았지만, 여러 멸종 이론들 중 어느 것도 공룡이 왜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부딪친 사건을 공룡 멸종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지름이 180km 나 되는 커다란 운석 구덩이의 연대를 측정했는데, 이 운석 구덩이의 생성 연대가 공룡이 멸종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긴 직접적 충격으로 인해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종이 갑자기 멸종된 것이라고 ㉠

보기는 어려우며, 그 충돌 때문에 발생한 2차적 영향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것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생길 정도의 파괴력이면 물리적 충격은 물론 지구의 대기를 비롯한 생존 환경에 장기간 ㉡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체들이 멸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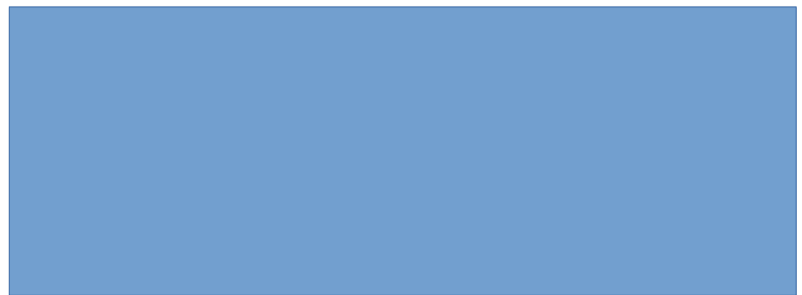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뉴질랜드 국립 지리□핵과학 연구소(GNS)의 조사팀은, 운석과 충돌한 지점과 반대편에 있는 '사우스'섬의 서부해안에서 발견된 '탄화된 작은 꽃가루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환경의 변화가 운석과의 충돌 지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6500만 년 전의 지층인 K-T 퇴적층에서는 지구에는 없는 원소인 팔라듐이 다량 발견되었고, 운석에 많이 함유된 이리듐(Ir)의 함량이 지구의 어느 암석보다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것 역시 '운석에 의한 충돌설'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공룡이 멸종됐던 백악기 말과 신생대 제 3기 사이에 바다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의 용해 정도가 갑자기 증가한 것도 당시 지구에 급속한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운석에 의한 공룡의 멸종설은 점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다는 데에 있다. 씨앗으로 동면(冬眠)할 수 있는 식물들과 비교적 조그만 동물들이, 대기권을 가득 메운 먼지로 인해 닳친 '길고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생존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몸집의 공룡보다는 은신처와 먹잇감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며, 생존에 필요한 기초 활동들이 공룡보다는 용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룡이 멸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운석과의 충돌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나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종(?)이, 갑작스럽게 멸종하느냐 진화하면서 생존하느냐 여부는 '자연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이것이 생존의 조건인 셈인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더 많은 생존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변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응력이 뛰어난 어떤 돌연변이의 후손들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며 생존하기도 한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공룡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껏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않은 것은?



보고 결혼해서야 되겠니?

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본 뒤에 결정합시다.

보고 건너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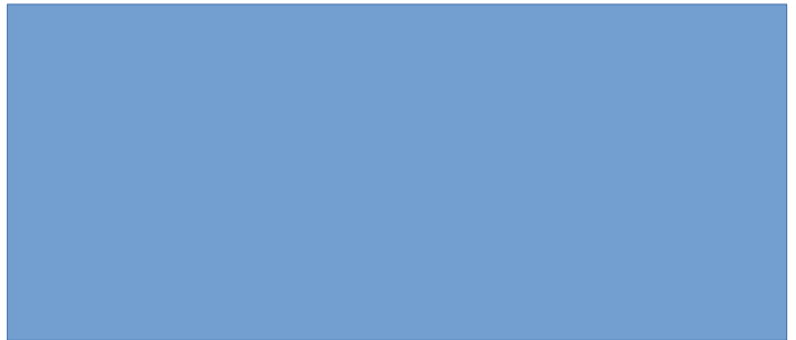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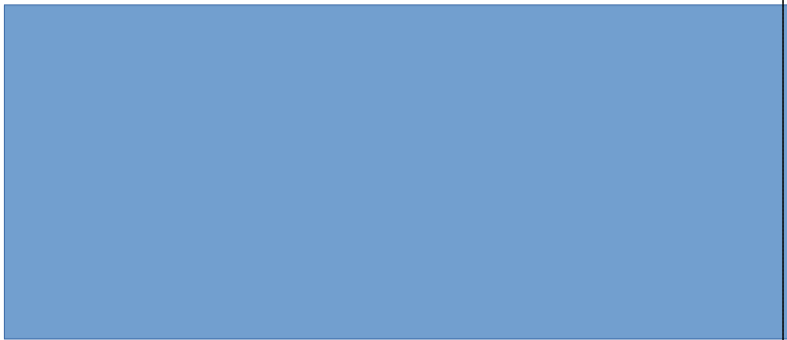
노릿노릿하다, 노리톡톡하다, 누렁다, 누리께하다, 누르무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누릇누릇하다, 누르톡톡하다, 누르칙칙하다, 셋노랑다, 싯누렁다'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예들을 살펴보면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

국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문장의 주어가 스스로 했는지 남을 시켜서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와서도 "나 오늘 이발했어." 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에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런 현상은 집단의 동질감을 개인보다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어를 배움으로써 문화적 전통을 동시에 습득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으로는 민족적인 유대감(???)이 형성된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습득된 지식이다. 어려서 습득한 문화적 특징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얕은 것은? [1 점]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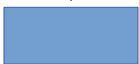
□

한 나라의 언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문화의 흔적들은 어휘, 문장 구조 등 의사소통의 관계를 투영하는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친족 관계의 윤리적인 제도가 발달한 우리 문화에서는 촌수를 정밀하게 따지며, 그에 따라 친족 호칭이 세분화되었다. 영어에서는 'uncle'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시되는 삼촌도 백부, 숙부, 외숙으로, 사촌도 친사촌, 외종, 고종을 구분하여 부른다. 그리고 영어와는 달리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반말과 존대어의 이원적 대립 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국어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했는데, 이는 본래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으로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닌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색채어(???)에서 일례를 들어 보면, 영어에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은 'yellow' 하나 정도인 데 비해 국어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노랑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톡톡하다, 노리께하다, 노리끄레하다, 노리무레하다, 노릿하다,

얕은 것은?



언어영역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가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푼다. 용왕이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대사는 제자 성진을 보내 사례하는데, 성진은 용왕의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중 석교에서 위부인의 시녀 여덟 명을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 준다. 성진은 팔 선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속의 부귀공명으로 변뇌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환생하여 차례로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 벼슬이 승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

홀연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지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잇음 험탄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변을 정별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보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h)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녘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변을 정별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호승이 소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널 뒷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며,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를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

대사 가로되,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 되니' 어니 거짓 것이요 어니 진것 것인 줄 분변치 못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니는 진것 꿈이요 어니는 꿈이 아니뇨?"

성진이 가로되,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것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언어영역

11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아닌 것은? [1 점]

않은 것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점]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 왔다. 차근히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딛고 올라서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 중앙 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히 제대로 밭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 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갈지(?) 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언어영역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 바위 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 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켜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밝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을 딛고 밟아 올라서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유경환, 돌층계

(나) 나는 길고 아득한 인생 여로의 대목마다 가로등이 켜 있기를 빌었다. 참으로 가로등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은은히 비치는 별빛이다. 나는 그것을 목표로 어둔 길을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게 된다.

가로등 가까이 이르게 되면 길이 환해지고, 때로는 목표한 가로등에 함박눈이 잉잉거리는 별뚃처럼 설레기도 하고, 가는 실비가 비단 베일을 씌우며 신비롭게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어둠 속에 등불만 쫓긋이 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목표한 가로등을 지나면 나의 그림자가 발에 밟힌다. 그림자가 밟히는 사실을 나는 무어라 표현할까? 눈물겨운 추억의 한 자락이 발에 밟히는 것이라 할까? 나는 이 어둡고 고독한 밤길에 다만 가로등이 비쳐주는 그만큼의 '빛의 둘레' 속에 나의 그림자와 더불어 호젓이 길을 걷는 한갓 영상(??)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 자신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흐뭇한 고독감□□□□□□.

그것은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서러움의 물길이다. 이 물길 위에 배를 띄우듯 어쭙잖은 몇 편의 시□□□□□□ 그것이 나의 숨쉬는 시의 세계일 것이다.

가로등이 비쳐주는 이러한 빛의 둘레를 완전히 벗어날 때 앞이 아득한 암흑의 벽을 느끼며 어두운 앞길에 또 하나의 가로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가로등이 없을 경우 아득한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아닐까 보냐.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다.

나의 일생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나온 길 위에 그것은 열을 지어서 스크린의 어느 한 장면처럼 끝없이 펼쳐 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설사 아무리 절망하기로 늘 가로등이 대목마다 켜 있는 길일 것이다. 내가 마음 속의 신을 잃지 않는 한, 혹은 시(?)를 놓치지 않는 한, 나는 창백한 이마에 가로등의 그 쓸쓸한 불빛의 키스와 축복을 받으며 외롭게 흐뭇한 밤길을 가게 될 것이다. - 박목월, 가로등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지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엾어서……."

어머니는 콧물을 짼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시름을 들었을 주지승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승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겠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허나." /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승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언어영역

13

"..... 그럼 닥부터 해 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걱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여승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여승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택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중략>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승이 씨근덕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택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 둔 먹물 들인 모시 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에서 영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 읽거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 문수의 손길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쫓고,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쫓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은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뺨뺨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리속에 피가 딱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심히 저주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라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충충히 바깥 시식돌[???]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썼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항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에

매달리던 문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 가서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강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

일 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미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 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뭘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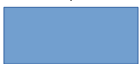
□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 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찌렁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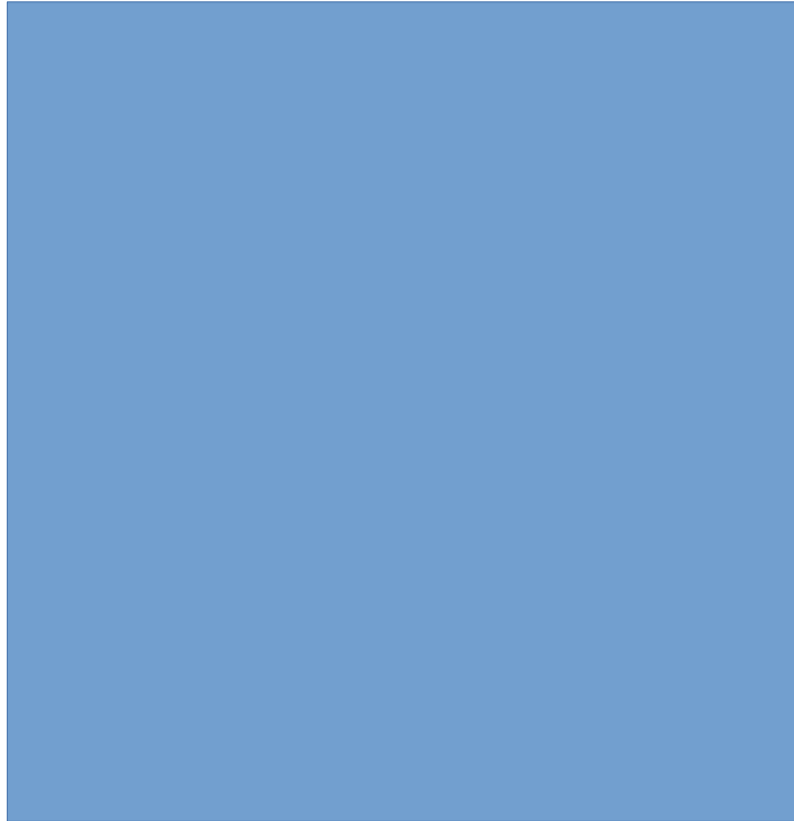
- 박경리, 불신시대

*천도 :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함.

**영가 : 영혼.



언어영역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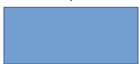
르카프! 이것은 운동회에 달린 상표만은 아니다. 그 어원을 알아보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라는 라틴어의 첫 글자를 모으고 정관사 '르'를 붙인 것이다. 디동(Henri Martin Didon)이 운동선수들에게 한 이 말은 쿠베르탱이 IOC 회장직을 사임하는 연설에서 올림픽 공식 표어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쿠베르탱의 이 말은 결국 그가 근대 올림픽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이라는 본래 정신을 붕괴시키는 실언이 되고 말았다.

르카프의 비극! 그것은 무엇일까?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에서 고대의 올림피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육체의 근육만을 특출하게 발달시키는 '스포츠'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것은 균형 잡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그 역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플라톤의 이러한 비판은 오늘의 올림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

플라톤의 비판이야말로

오늘날 기록주의□실적주의□결과주의적 스포츠를 낳게 한 현대 스포츠상업주의의 모태가 되고 있다. 플라톤 비판의 함정은 바로 육체와 정신을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르카프!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이러한 올림피즘이야말로 소외노동의 전형적 형태라고 비판한다.



언어영역

15

소외노동이란 노동 그 자체가 삶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운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를 말살하는, 즉 인간 주체가 노동에 의해 소외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르카프의 비극은 바로 스포츠에 의한 스포츠 소외이며, 이는 결국 인간 소외라는 비극으로 귀결된다.

기철학(L??)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인의 스포츠 개념은 전통적으로 몸을 통한 마음의 수련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스포츠는 정신과 분리된 육체의 기운을 집약하여 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집약적 표출은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며, ㉠

그 파괴의 결과가 메달 수로 집계되고, 이것은 또 국력으로 비약된다. 그것은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는' 스포츠이다. 그리고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궤도를 벗어나 국가 주도의 아마추어리즘에 지배되고 있다.

스포츠란 본래 어원적으로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놀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대중 스포츠로서의 '놀이'의 본질을 회복하는 인간화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메달 수 때문에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소외 스포츠 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여유 있게 민주적 삶을 쟁취해 나가는 계기로서 올림픽의 의미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네오마르크시스트 : 정통파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서 분파(?)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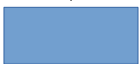


면 것은? [3 점]

그것은 선수들이 국가 주도로 집중 훈련되었기 때문이지요.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 농약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이나 해충,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에 있는 생물로 만든 천연농약을 뜻한다. 생물 농약을 개발한 것은 흙 속에 사는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목적에서였다. 뿌리를 공격하는 병원균은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을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화학 농약의 경우 그 성분이 토양에 달라붙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물



언어영역

성장을 돕고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미생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식물 성장을 돕고 항균 작용을 하는 미생물집단을 '근권미생물'이라 하는데, 여러 종류의 근권미생물 중 농약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뿌리에 잘 달라붙는 것들이다. 근권미생물의 입장에서 뿌리 주변은

□ 와/과 비슷한 조건이다. 뿌리 주변은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분과 안락한 서식 환경을 제공받지만, 뿌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황량한 지역이어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리 주변에서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미생물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얼마나 뿌리에 잘 정착하느냐가 생물 농약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은 식물 성장을 돕는 성질을 포함한다. 미생물이 만든 항균 물질은 농작물의 뿌리에 침입하려는 곰팡이나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게 한다. 그리고 병원균이나 곤충, 선충에 기생하는 종들을 사용한 생물 농약은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흰가루병은 대부분의 채소에 생겨나는 곰팡이균 때문에 발생하는데, 흰가루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의 영양분을 흡수해 죽이는 천적 곰팡이[암펠로마이세스 퀴스칼리스]를 이용한 생물 농약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

항생작용을 위주로 한 생물 농약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뿌리에 사는 생육촉진세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기(?IJ)를 맞게 된다. 생육촉진세균은 뿌리 표면이나 내부에 기생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균이나 병원체의 침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생육촉진세균이 기생하는 식물은 세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각종 질병에 강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생물 농약은 그 적용 범위가 항생작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효과가 식물 전체에 미친다는 점, 좀더 다양한 외부병원균 및 불량 환경에 맞선다는 점에서 □

생육촉진세균을 이용한 생물 농약은 기존의 생물 농약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생물 농약은 친환경적이고, 계속 사용해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아, 해충의 □

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개발비도 화학 농약 개발비의 1/10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생물 농약을 사용하는 농법은 기존의 농법이 지녔던 단점을 극복하는 선진 농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않은 것은? [1 점]



□ 확인 사항

